



조간 제7963호 대표전화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음력 9월 24일)

‘분양가 전쟁’에 광주 재개발 ‘주춤’

평당 2402만원 vs 2850만원 건설사·광천재개발조합 이견
신가동·임동 등 비슷한 갈등 반복...“합리적 조정 시급”

광주지역 주택 정비사업이 잇따라 표류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 속 조합과 건설사가 분양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사업이 장기간 발이 묶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사비 인상과 미분양 리스크가 겹치며 공사자들은 ‘시장 수용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조합은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분양가를 고수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광주 서구 광천동주택

재개발사업이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이 사업은 광주 최초 자사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지(TH E H)’를 적용하기로 하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조합과 공사사 간 분양가 책정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사업은 교착 상태다. 현대건설은 최근 미분양 우려를 이유로 일반분양가를 3.3㎡(평)당 2402만원으로 조정해 달라는 공문을 조합에 전달했지만 조합은 2850만원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광천동 재개발은 서구 광천동 일원 약

25만㎡ 부지에 지상 최고 45층, 총 5000여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현대건설은 당초 평당 2458만원의 분양가를 제시했지만, 최근 시장 침체로 분양 리스크가 커지자 가격 인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합은 “디에이지 브랜드 가치와 입지 여건을 고려할 때 낮은 분양가는 사업성 악화 등으로 이어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서구 에딩그룹위더스에서 현대건설 공사도급 계약 진행사항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조합이 부담할 실제 공사비와 사업비에 대한 확인, 예상 조합원 분양가, 일반분양가, 추가분담금 등이 논

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조합안 관철, 현대안 수용, 대체 시공사 모색 등 3개 안에 대한 의견도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사업 역시 공사사와의 분양가 협상이 무산되며 철거만 끝난 채 장시간 멈춰 있다. 조합이 요구한 분양가를 공사사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됐고, 이후 새 시공사 선정마저 유찰을 거듭했다. 여기에 조합 내부 갈등이 겹치며 조합장 해임과 가져본 신형 등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사업 부지는 철거 후 공터로 남아 있으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연제쥬 재개발이 재개발지 모르겠다”는 체념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2면에 계속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메달 및 증서



이한열 최루탄 피격 유품



법정 스님 bibbeyong 의자



소록도 마리아노와 미가렛 치료 및 간병도구

DJ 노벨평화상 메달 ‘예비문화유산’ 된다

국가유산청, 10건 가결
이한열 열사 착용 유품
법정 스님 ‘bibbeyong 의자’
소록도 천사 등 선정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메달과 민주화운동의 상징이 된 이한열 열사의 유품이 우리나라 첫 ‘예비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12일 “문화유산위원회 근현대분과 소위원회가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메달 및 증서’를 비롯한 10건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모두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다. 예비문화유산 제도는 제작 또는 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근현대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할 만한 유산을 발굴·보존하기 위해 신설됐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선정된 유물들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주요 순간과 인물, 사건을 상징하는 역사적 자료”라고 설명했다.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메달 및 증서’는 한국인 최초의 노벨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 화해와 평화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김 전 대통령은 2000년 한국과 동아시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1987년 6월항쟁의 기록제가 된 이한열 열사의 유품도 예비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됐다. 최루탄에 맞아 숨진 당시의 옷과 신발은 한국 민주주의의 피와 희생을 상징하며, 국가유산청은 “오늘날 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상징물”이라고 평가했다. 법정 스님이 순천 송광사 불일암에서 수행하며 직접 제작·사용한 ‘bibbeyong 의자’도 이름을 올렸다. 영화 ‘bibbeyong’에서 유래한 이 의자는, 스님이 외딴 수행의 고독 속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는 의미로 명명됐다. 전남 고흥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로 치료에 평생을 헌신한 마가렛 피사렛·마리아노 스티거 간호사의 유품도 예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인류애와 봉사의 상징으로, 국가유산청은 “이들의 유산은 인간 존엄의 실천적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상징적인 유물들이 포함됐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회식에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굴렁쇠’와 윤태웅 군의 의상 스케치 △1976년 한국인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 △1991년 남북단일팀 탁구선수단이 사용한 탁구채와 삼각기 등이 모두 가결됐다. 국가유산청은 조만간 정부 관보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고시하고, 예비문화유산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성호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2일 오전 광주 남구 설월여고에서 수험표를 받은 고3 수험생들이 선생님과 후배들의 응원을 받으며 수능대박 중을 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내일 재가동...화재 6개월만

대형화재로 멈춰 섰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6개월만에 생산을 재개한다. 12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14일부터 광주공장 전체 생산직 1854명 중 400여명을 투입해 4조 3교대로 하루 4000본을 생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3일 직원들이 출근해 안전

교육을 이수한다. 앞서 노사는 광주공장 생산직 가운데 곡성공장 파견 인원과 휴직자를 뺀 670여명을 재가동에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금호타이어는 공장 증설에 맞춰 단계적으로 하루 6000본 생산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1만본(연간 350만본)까지 생산량

을 늘린다는 목표다. 금호타이어는 화재 피해가 없는 1공장에서 반제품을 결합하는 성형 공정, 타이어 형태로 만드는 가루 공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2공장은 불에 타지 않은 일부 설비를 활용해 검사·선별·출하 공정을 거친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컨설팅 · 설계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40-8374 / 010-4572-7164